

Sermon of the Week:

The Promise That Frees Us From Ourselves



Passage: Jeremiah 31:31-34 (ESV)

Date: November 16, 2025

Pastor: Dong Suk Chung

When God delivered Israel from Egypt and led them into the promised land of Canaan, He gave them the Law. Yet, as the Lord said in this passage, "though I was their husband, they broke My covenant." Israel could not fully obey God's Law according to His standard. So God promised a new covenant. When He said,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I will write it on their hearts," He was promising to give us the Holy Spirit, who places God's living law within our hearts.

The tragedy that fell on humans—who were created in God's image and made to dwell with God—is that Satan entered the very place where God was meant to dwell. This world also came under the curse, groaning and becoming a slave to decay. In such a world, there is no perfect hope and no lasting happiness. What, then, can we hope for? Our only hope is the new covenant God has given us.

The old covenant emphasized human works. It was a fearsome covenant in which sin brought punishment. But the new covenant is founded on God's work. The Creator God entered creation and came to us in human flesh. He became one of us, died, and rose again. As Paul says,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2 Corinthians 5:17]. We did not become new by our own efforts. Jesus became us. He died, rose with us, and through Him we became new. Our part is simply to receive and enjoy this

truth by faith. Just as we had no part in God forming us from the dust, we had no part in the Son redeeming us. We simply believe and receive. Any attempt to add to this work is the work of Satan.

We must know this unshakable truth: the Jesus who came to this world 2,000 years ago became us. When the eternal God came as a man, we were in Him. So when He died and rose again, we died and rose with Him and became new creations. If this truth is hard to believe, then the spiritual battle of every believer is to drive out the thoughts and feelings that keep us from believing it.

Faith is becoming one with Jesus, the God who became man. Our faith begins here. If He died, I died. If He rose, I rose. When I cannot believe this, I try to make myself holy and try to avoid sin by my own strength. But such effort denies the redemption Jesus has already completed. We think that if we try hard not to sin, the Lord will help us. But the very effort to make ourselves holy is already stepping away from Him and He cannot help us there. What pleases the Lord most is when we believe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acknowledge that we have been made righteous. He also completed our sanctification 2,000 years ago and now works it out in us by His Spirit.

Jesus is the vine and we are the branches. When we focus only on our husband, wife, or children, we become branches trying to detach ourselves from the vine. Even if what we say to our family sounds right to us, our words cannot save them. A branch that is trying to solve problems by its own power is prideful. Even when our situation is chaotic or filled with trials, the problem

is not ours. We must turn our eyes from the problem and look only to the Lord. As we remain in deep fellowship with Him, the fullness of His life grows in us. We begin to believe in His promise that our family is already saved; and His life will eventually flow out and bear fruit in them. The One who calms the storm is the Lord. The more I die, the more His fullness flows out of me. So we must not try to fix things by ourselves. We must keep turning to the Lord.

When we feel shaken in our belief that the blood of Jesus has already cleansed us, then all the more we must declare, "I am a child of God." Every feeling and emotion that contradicts this is a lie from Satan. Do not accept thoughts that arise from yourself. Acknowledge only God's Word.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Romans 10:10]. We must declare this truth to ourselves and drive out the thoughts of darkness.

The new covenant is not a covenant we keep by our works. It is a covenant given so that we believe what has already been finished. In every verse of Scripture, God wants us to receive His Word as it is. As we receive what Jesus has already accomplished on the cross and defend this position, the Word becomes our reality and we end up praising the Lord. By this grace, sickness and every problem will melt away like ice. May this wondrous work of God's new creation fill the life of every believer.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11월 30일, 2025년

NASUNGCHURCH.NET

83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예레미야 31장 31-34절

날짜: 11월 16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새 언약은 곧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심령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모시도록 되어 있던 인간에게 닥친 비극은, 하나님이 거하시야 할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 역시 함께 저주 아래 놓여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소망도, 완전한 행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활동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여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흠으로 지으실 때 우리가 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도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누리면 됩니다. 오히려 그 역사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려는 모든 시도는 사탄의 역사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2천 년 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속에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시면 나도 죽은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애써야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거룩해지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주님을 떠나는 것이기에 주님이 도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이미 2천 년 전에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그 말로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환경이 엉망이고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이 자라고, 이미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믿게 되고, 결국 그 생명이 가족에게 흘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을 수록 내 안의 주님의 풍성함이 흘러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이미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감정과느낌은 모두 사탄에게서 온 거짓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생각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하신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도 이 진리를 선포하여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 주신 언약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받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고 싸우다 보면 말씀 그대로 실체가 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은혜로 질병도, 모든 문제도 열음이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12월 2일 (화)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성희 자매** 1여선교회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형로 집사** 윤춘자 집사 남편 김형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3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성도의 참된 영적 싸움은 무엇이며, 가정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주간소식

- 다음 주일에는 12월 정기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구역모임 방학을 이번주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갖습니다. 구역방학 기간 동안에도 계속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각 남녀 선교회 회장들께서는 2025년 선교회 결산보고서를 12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